



일상 회복의 그날 꿈꾸며 동네 공연장 뜨거운 무대

아트락소극장 아트락데이 11월까지 매월 첫 주 토요일 8월에는 록 밴드 2팀 출연

동네 공연장에서 일상의 회복을 꿈꾸는 뜨거운 무대를 만나보자. 제주시 영평마을 입구에 들어선 민간 공연장인 아트락소극장 기획으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아트락데이'다.

총 6회에 걸친 아트락데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공연예술 활동을 극복하고 일상적인 소규모 공연을

정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라이브 공연으로 지난 5월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소규모인형과 함께 마임이스트 이경식, 민중음악 가수 김영태와 기타리스트 김재형, 어쿠스틱 듀오 여유와 설빈이 차례로 출연해 각기 다른 빛깔의 무대를 빛어왔다.

8월에는 '아트락 밴드 데이'가 열린다. 이달 7일 오후 7시 밴드 '끝없는 겨울방학'과 '바나나문'이 출연해 강렬한 록 사운드를 풀어낸다. 10월은 춤꾼 박연술이 소규모인형과



제주시에 있는 민간 소극장 아트락소극장 주최로 열린 7월 '아트락데이' 어쿠스틱 공연.

'상상해 봐요!'란 제목 아래 제주 자연 환경을 다룬 공연을 벌인다. 아트락데이 마지막 일정이 11월에는 김수열 시인을 초청해 '어디에 선들 어따랏'란 이름으로 소규모인형과 함께 토코콘서트를 갖는다.

공연 장면은 유튜브 채널 아트락

TV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현장 관람(유료)은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입장 가능한 인원은 20명이다. 소극장 주소는 제주시 연신로15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10-2741-9374.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시와 만난 권투의 서정... 늦은 사랑 고백

장문신 김종호 김문수 시집 김영기 여덟 번째 동시조집

제주에 사는 시인들의 시집을 차례로 받았다. 치열함과 달관을 오가는 권투의 서정이 그려지거나 이젠 함께할 수 없는 이를 향한 그리움이 거기에 있었다.

1990년 서울신문, 199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출신인 서귀포의 강문신 시인은 시조집 '해동(解冬)의 들녘'을 냈다. '연초록 지고지순이 시어보다 곱습니다'('그들은')라며 굴목목 가꾸는 일에 폭 빠져 사는 시인이지만 '세컨', '수건', '어느 릉사이드', '첫 출전' 등 제주북시화관 관장 이력이 드러나는 시편들이 던지는 인상이 강하다.

"세상은 세컨도 심판도 없는 4각의 링/ 도무지 그 흐름은 안개 안개 속의/ 양다문 인과이팅이었다. 어찌보면 무모한"('안개')처럼 시인의 모습이 투영된 듯한 '나'는 북성에서 정글같은 인생을 본다. 그래서 시인은 "물, 물, 물 한 모금이 기도보다 간절했던/ 시합 전 체중조절의 그 목마름도 새겼으면/ 소소한 사연들이사, 아예 입을 다물어"('흔잣발')라며 이 생애 쉽게 비실대는 이들을 꾸짖는다. 시인은 관장, 시인, 선생, 사장 중에 어느 호칭이 가장 맘에 드느냐는 질문에 "관장"이라고 대답한다. "거기엔 피땀 내음 배어있어"('그런거')라며, 문학고사람, 1만2000원.

김종호 시인은 '잃어버린 신발'을 내놓았다. 표제지 등 먼저 저 세상으로 가버린 배우자에 대한 "늦어버린



사랑의 고백"으로 채운 시집이다. 시인은 "아내는 그 숲길에 놓인 작은 다리를 건너 떠났다. 그 숲을 걸으면서 아내와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며 "숨이 막힐 듯한 고통이 일 년이란 시간이 되었다. 참긴 시간을, 제6시집을 준비하면서 보낼 수 있었다"고 적었다. 푸른생각, 1만1000원.

"한라산 영실과 중간간의 황량함에 이끌려" 제주에 동지를 둔 김문수 시인은 '믹스커피가 달달하다'란 제목의 시집을 묶었다. 13년째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는 시인은 "젊은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사는 게 재미가 없다면 시를 읽고 제주로 오세요"라고 했다. 새미, 1만2000원.

동시를 쓰는 원로 김영기 시인은 동시조집 '달팽이 우주통신'을 출간했다. 시조 사랑의 마음을 담아 펴낸 여덟 번째 동시조집으로 초등 고학년과 청소년을 주 독자층으로 삼았다. 세계절에 따라 변해가는 생태의 시, 자연 사랑을 주제로 정선지 작가의 그림을 더해 60편을 실었다. 아침마중, 1만1000원.

진선희기자

제주 문학지 여름호 풍성

'다충' 특집 '폭력과 저항' '제주문학' 정인수 시인 추모 '제주작가' 잊혀진 1991년

문학의 풍경이 밴 제주밭 문예지와 기관지 2021년 여름호가 잇따라 나왔다. 계간 문예 '다충', 제주문인협회의 '제주문학'과 제주작가회의의 '제주작가'다.

'제주문학' (통권 87호)은 두 개의 특집을 마련했다. 정인수 시인 추모 특집에서는 '삼다도' 등 대표작 5선과 함께 '섬과 섬 사이, 표박하는 서정'(허상문)으로 시 세계를 다뤘고 '미루나무 꼭대기에서 구름이 되어 웃고 계시는 선생님'(김지희)으로 고인을 추억했다. '지역문학을 말한다' 좌담회 특집에는 구좌문학회, 대정현문학회, 애월문학회, 한림문학회, 한수풀문학회, 함덕문학회에서 각각 활동하는 강상돈, 고성기, 김승범, 김철선, 진해자, 한문용 작가가

참여했다. 1만4000원.

'제주작가' (통권 73호)는 '잊혀진 역사-1991년을 말한다'를 특집으로 다뤘다. 1991년은 양용찬 열사가 제주도개발 특별법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해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주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현실에서 1991년의 기억을 새기고 그 의미를 짚었다. '공감과 연대'에서는 김시중 시인의 시집 '일본풍토기' 마지막 편과 오세종 류큐대학 교수의 해설을 수록했다. 김석범 소설가가 지난해 발표한 에세이 '生·作·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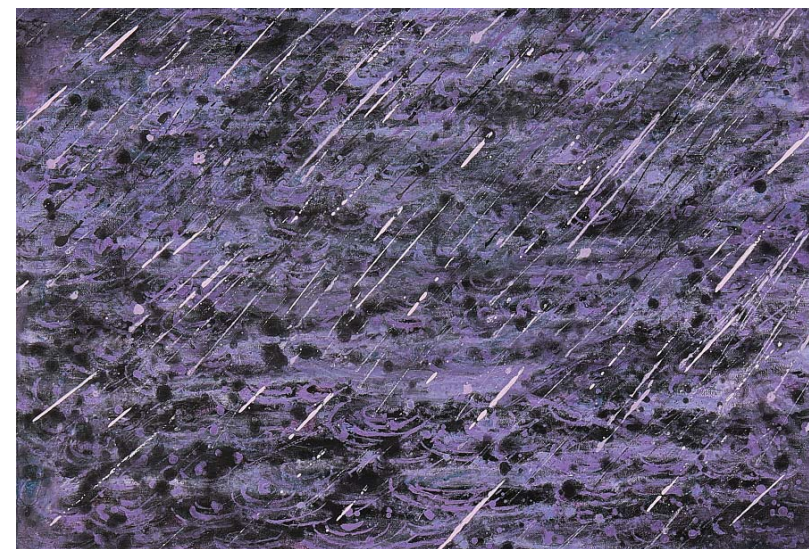
(생·작·사)'도 우리말로 번역해 실었다. 1만3000원.

'다충' (통권 90호)은 '폭력과 저항'을 기획 특집으로 담았다. 시인이자 평론가인 박수빈은 '폭력에 저항하는 그 많은 목소리들'을 통해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군 위안부, 제주4·3, 광주 5·18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역사 시편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을 살폈고 작금의 미안마 사태까지 들여다봤다. 젊은 시인 7인선, 시조시인 3인선, 다충소시집 등도 만날 수 있다. 1만원.

진선희기자

갤러리ED 지상전 (13)김강훈의 '하우(霞雨)'

이 하늘 아래 다르지 않은 비와 당신



내면을 비추는 비의 표정 우연성과 계획성의 화면

지금, 그대가 있는 창밖에 비가 내린다. 거리를 걷다 그 비를 맞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비는 각기 다른 표정으로 일상에 스민다. 중국 중앙미술학원 회화와 학사, 석사를 마친 김강훈 작가는 비에 천착하고 있다. 한라일보 1층 갤러리 이디(ED)의 MZ세대 제주작가 초대전에도 비 내리는 장면을 담은 작품이 걸렸다.

그에게 비는 나와 너, 또는 그 누구나 동등하게 겪는 존재다. 그 비에 흠뻑 젖은 경험을 하거나 다른 일에 열중해 비 오는 줄 모르는 이도 있지만 사람과 사물 모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과 마주하기 때문이다.

비는 내면을 비춘다. 자연과학에서 '대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어 지상으로 떨어지는 기상현상'을 일컫지만 낙하하는 순간 인간의 감성과 만난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것은 고단함을 씻겨낼 단비도 되고 눈물 방울도 된다. 희비는 영

원하지 않다. 비가 그치고 내리듯, 우리들 나날에도 기쁨과 아픔이 교차하며 삶을 단련시킨다. 그러나 어제 비를 맞았다고 내일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 비는 어느새 인류애, 평등의 가치로 확산되며 생의 의미를 새기도록 이끈다.

김 작가는 드리핑 기법을 이용해 중국 중앙미술학원 회화와 학사, 석사를 마친 김강훈 작가는 비에 천착하고 있다. 한라일보 1층 갤러리 이디(ED)의 MZ세대 제주작가 초대전에도 비 내리는 장면을 담은 작품이 걸렸다. 그에게 비는 나와 너, 또는 그 누구나 동등하게 겪는 존재다. 그 비에 흠뻑 젖은 경험을 하거나 다른 일에 열중해 비 오는 줄 모르는 이도 있지만 사람과 사물 모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과 마주하기 때문이다.

호우(好雨), '하우(霞雨)', '호우(好雨)' 등 그가 캔버스에 아크릴로 작업한 비 풍경엔 붉거나 푸르른 색감이 펼쳐진다. 그 시를 일컫지만 낙하하는 순간 인간의 감성과 만난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것은 고단함을 씻겨낼 단비도 되고 눈물 방울도 된다. 희비는 영

진선희기자

한림수채화회 3회 정기전 8월 13일까지 한수풀갤러리

한림수채화회가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림읍사무소 안에 있는 한수풀갤러리에서 세 번째 회원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정기전에는 양창부 작가의 지도 아래 9명의 회원이 참여해 맑은 화

면 속에 편안하고 친근한 풍경을 담았다. 회원들은 "한 땀 한 땀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 결실을 맺는 농부의 마음처럼 정기전을 준비했다"며 "아직은 부족함이 많지만 평소 꿈꿔왔던 희망의 나래를 펼쳐보고자 한다"고 했다. 2014년 창립전을 개최했던 한림수채화회는 50대에서 80대까지 수채화에 대한 열정을 간직한 한림, 환경 지역민들이 활동하고 있다.

진선희기자

참치항에서 참치요리의 아우라를 느껴보세요

제주 1등 참치!!

혼자서도 즐길수 있는 바~ 가족 연인 모임을 위한 다양한 룸~
깨끗한 시설과 최고의 참치 맛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추수시항

참치 전문점

시원한 여름메뉴 참치물회 개시

점심단품특선

참치초밥	15,000	참치회덮밥	8,000
대구지리	8,000	알탕	10,000
대구매운탕	8,000		

저녁 회코스 메뉴

VIP 95,000 진 70,000 선 55,000 미 35,000

제주시 노형동 719

예약 064-745-8808 매주 일요일 휴무